

11월 30일 (월) / 딤전 4-6

- **내용요약:**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다스리며 봉사할 거룩한 직분자들의 자격요건에 대해 심도깊게 논했던 바울은 3장에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1-5절)와 이단들에 대한 할 향할 진리를 사수. 전파해야 하는 교역자들에게 절대 요구되는 능력 있는 경건예의 훈련(6-10절), 육체로써가 아닌 신령한 능력과 권위로써 못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역자들의 본연의 모습 등을 말씀하고 있다. 5장에 이르러 바울은 교역자들이 교회를 다스려 나갈 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각 신본과 연령층에 대해 어떤 태도로 그들 각각을 대하여야 할지 가르친다. 남녀노소에게 대할 태도, 과부들을 대할 태도, 장로들에게 대할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특별히 과부와 장로에 관계된 내용에 긴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초대교회 내에서 양자의 처우 문제가 교회 부흥에 중요한 관건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6장에서 바울은 종과 상전의 바른 관계를 언급하고 교역자가 경계해야 할 이단과 돈에 관해 주의를 환기하고, 대처법으로 경건과 자족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하며,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울 것, 거짓 지식을 피할 것들을 교훈하고 있다.
- **질문:** 이단과 돈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6장)?
- **생각하기:** 복음전도자는 지식과 말로써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어야한다(벧전5:3).

12월 3일(목) / 히 1-3

- **내용요약:** 본서는 옛 언약(율법)에 기초한 유대교를 향한 새 언약(복음)에 기초한 기독교의 변증서(辨證書)라 할 수 있다.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각종 핍박과 신앙적 오류로 인해 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연약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절대 우월성을 입증함으로써 배교(背敎)를 예방하고 참믿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돈독히 세워주기 위해 본서가 기록되었다. 1장에서 본서 기자는 골방 구약의 그 어떤 신지자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증거하고(1-3절), 유대인들이 피조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로 믿고 있던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우월함을 구약성경응 통해 입증하고 있다. 2장은 천사보다 절대 우월하신 그리스도께 절대충성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분께 불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일인지 경계한다(1-4절). 본질적으로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가 잠깐동안 천사보다 낮은 자리에 머무신 그리스도의 자기비하(自己卑下)를 말하고 있다(5-18절). 3장은 신분상 모세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집(이스라엘)의 사환에 불과하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차이점을 밝히고 모세아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언급하며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밝힌다.
- **질문:** 히브리서의 핵심내용과 특징은 무엇인가?
- **생각하기:** 그리스도는 우리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

12월 6일(일) / 히 10-13

- **내용요약:** 10장은 8장이하에서부터 언급되어 왔던 새 언약의 중보이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내용 가운데 결론부분이다. 10장에는 율법(옛 언약)에 근거한 제사는 해마다 거듭 드려야 하는 참으로 불완전한 것이요, 한번으로 영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 제사의 그림자에 불과함을 강조하면서(1-4절),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성을 소개하고 있다(5-10절). 그리스도의 중보의 능력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으로 드리신 완전하고 최종적인 제사를 근거로 하여 옛 언약(율법)에 대한 새 언약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다(11-18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신을

12월 1일(화) / 딤후 1-4

- **내용요약:** 본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 저작한 최후서신이다(A.D. 66년 경). 죽음을 앞둔 사람의 유언장처럼 차분하고 회상적이다.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고,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 디모데에게 능력 있는 목회를 할수 있도록 격려한다. 1장에서 바울의 디모데의 뿌리깊고 순수한 믿음에 대한 감사(3-5절), 받은 은사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그 받은 바 교훈에 착념할 것을 권하고(6-14절), 배반 혹은 충성했던 바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장에서 바울은 전도자를 좋은군사와 열심있는 경기자와 수고하는 농부에 비겨올바른 자세를 고취시키며, 복음 전도자는 주와 함께 동거동락해야 함을 깨우치고, 주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될 것과 거짓된 일꾼을 엄히 경계할 것을 가르쳤다. 3장에서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각종 타락상을 열거한 후, 죄악과 부패로 점철된 세상에서 진리를 좇아 설교자 하는 성도가 고난받을 수 밖에 없음을 가르치며, 대처법으로 성경을 배우고 확실하는 일에 거할 것을 명한다. 4장에서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다할 것을 권하고, 자신의 순교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일깨우며, 주변사정을 살핀 후, 문안과 축도로 끝을 맺는다.
- **질문:** 바울은 전도자를 무엇에 비유하는가? (2장)
- **생각하기:**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가?

12월 4일(금) / 히 4-6

- **내용요약:**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앞에 바로 서서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1-10절). 인간을 참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인간을 그 죄악된 자리에서 깨우쳐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것(11-13절)과 또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14-16절)을 가르친다. 5장은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 변호할 자이므로 그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있는 인간이어야하고 하나님께 부로 받은 바 되어 그분께서 주신 권위를 덧입은 자이어야 함을 말한다(1-4절). 본서 수신자들의 미약한 신앙 수준을 염려하여 그 수신자들을 향해 영적전진이 노력할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6장은 신앙의 진보를 위해 영적전진요구됨과 영적퇴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4-8절), 수신들을 향해 구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리고 소망을 끝까지 간직할 것을 명한다.
- **질문:**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인가?
- **생각하기:**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찢어 이뤄놓으신 구원과 은총과 특권과 영광의 귀함을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권면하고 있다(19-30절). 11장은 소위 '믿음의 장'이라 할 정도로 믿음의 실상을 다양하게 소개해준다. 진정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며 볼 수 없는 것을 보게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역동적 힘을 지니고 있어 개인과 공동체를 굳세게 해주고 그 운명을 변혁.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12장은 당면한 고난이 힘들지라도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

12월 2일(수) / 딤1-몬1

- **내용요약:** 당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이단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놓였던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던 영적아들 디도에게 본 서신을 기록한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설명하고, 교회 행정적 문제라 할 수 있는 장로를 피택하는 일, 교회의 건강상 유지를 위해 이단을 경계하는 일에 관해 조언을 주고 있다. 2장에는 노인들에게 주는 가르침, 젊은 남자들에게 주는 가르침, 중들에게 주는 가르침, 이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살아가야 할 이유에 관한 깨우침을 주고 있다. 3장에서는 시민 된 자로서의 마땅한 의무(1절), 모든 불신자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보일 올바른 태도(2-8절), 이단사상을 가진 자들에 대한 태도(9-11절), 당부와 문안인사 등을 적고 있다. 자신의 돈을 훔쳐 로마로 도피했던, 바울의 전도를 통해 참회하고 신자가 된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위해 편지를 쓰는데 바로 빌레몬서이다. 예수를 위해 갇힌 자된 바울의 문안인사, 빌레몬을 향한 감사,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겸손한 간청, 오네시모의 빛에 대한 바울의 변상약속, 인사와 축도로 구성되어 있다.
- **질문:** 디모데후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 **생각하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선한 시민으로서 행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딤후3:1절).

12월 5일(토) / 히 7-9

- **내용요약:** 7장에는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신비한 위치(1-3절),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뛰어난 점들(4-10절),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아론의 반차를 좇지않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 출현의 불가피성(11-28절)을 말씀하고 있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의 뜻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자 평강의 왕이요 그의 왕이시므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에 충분하다. 8장을 통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구약 레위계열의 대제사장직보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탁월함을 증거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장막 곧 참 장막에서 그 말은 바를 수행하기 때문에(1-6절) 그의 사역은 절대 우월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세가 받은 옛 언약(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지 못함)에 의하지 않고 인간을 능히 구원하는 새 언약에 의해 그의 대제사장직이 수행되기에 훨씬 탁월한 것이다(7-13절). 9장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하에서의 제사와 제물을 비교함으로써 새 언약하에서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다.
- **질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생각하기:** 그리스도안에서 더 이상 옛 언약아래서 필수적인 동물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완치하시는 당신의 구속의 피로써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보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것을 권면한다. 13장에는 신자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교훈들(1-6절), 교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교훈들(7-17절),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상호기도에 대한 말들(18-21절), 마지막으로 끝맺는 말과 축도(22-25절)등이 언급된다.

- **질문:**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완전하게 속죄하신 분은?
- **생각하기:** 11장 '믿음의 장'을 읽고나서 자신의 말로 믿음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면 무엇이라 하겠는가? (11:1절).